

#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해설』에 나타난 자유의지 이해

이경직 (백석대)

## I. 들어가는 말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출발점이 하나님인 반면에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의 출발점은 인간이라고 알려져 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성경론에 이어 신론에서 시작하지만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이 인간론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론과 특히 죄론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서는 삼위일체와 창조, 섭리를 다루는 신론 다음에 나온다. 6장은 인간의 타락과 죄, 형벌의 문제를 다룬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문에서 인간의 유일한 위로가 구원자 그리스도께 있음을 밝힌 후에, 그 위로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다루는 차원에서 기독교 교리를 제시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문은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합니까?”<sup>1)</sup>라고 묻고서 세 가지로 대답한다. 첫째, 인간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며, 둘째,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알아야 하며, 셋째, 그 구원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철저히 구원론적 관점에서 작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지식을 중심으로 첫 번째 지식이 전제되며, 세 번째 지식이 결론으로 나온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신론은 두 번째 지식과 관련하여 구원자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제시된다. “나는 믿습니다(credo)”로 시작되는 사도신경이 구원론과 관련하여 제시되는데, 사도신경의 상당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그리스도께 할애되어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도신경은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의 첫 번째이자 핵심인 대답인 “인간의 유일한 위로인 구원자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에 세 부분 중 첫 부분에서 인간의 비참함을 강조한다. 이는 인간 구원과 관련하여 인간의 기여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주제도 구원론적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개혁신학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였으며, 그 결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지위와 역할이 문제가 되어 왔다.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의 작성자 중 한 사람인 우르시누스가 그의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해설』에서 자유의지 문제를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선행연구들과 여러 이차문헌들과 씨름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글에서는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해설』 자체와 씨름하는 편을 택하고자 한다.

## II. 우르시누스의 자유의지 이해

### 1. 인간의 자유의지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8문과 관련하여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다룬다. 8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선은 조금도 행할 능력이 없고 모든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지

1)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원광연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66.

냈을 만큼 부패해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은 강한 긍정으로 대답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8문답에 따르면 현재의 인간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즉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선과 악 중에서 악을 선택하는 성향만 지녔다. 이는 자유의지와 관련하여 타락 이전 상태의 인간과 타락 이후 상태의 인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물음을 낳는다.

우르시누스에 따르면 이 차이를 알 때 우리는 (1)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낮은지를 알게 되며, (2) 우리 스스로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함을 알게 되며, (3)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다.<sup>2)</sup> 이 세 가지 지식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락 이전 상태의 인간과 타락 이후 상태의 인간 사이의 차이를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우르시누스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해 가르치는 목적이 “사람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보게”<sup>3)</sup> 만드는데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는 인간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적 접근과 큰 대조를 이룬다.

우르시누스는 타락 이전의 인간이 자유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타락한 인간이 자유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 그는 타락한 인간에게 선이나 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선택의 능력이 없다고 여긴다. 이는 “인간의 유일한 위로가 구원자 그리스도께 있다”는 1문답의 핵심 내용과 연결된다.

우르시누스에 따르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우르시누스는 “성령의 중생케 하심과 그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행위를 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에 따르면 성령의 특별한 은혜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은혜로운 예정을 통해, 피조물에게는 그러한 작정을 통해 주어진다. 인간이 악 대신에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sup>4)</sup>

## 2.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양립가능성

하지만 우르시누스는 타락한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는 있다고 주장한다. 타락한 인간은 선과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할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고 오직 악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그는 그 선택을 자의적으로 원하기 때문이다.<sup>5)</sup> 그는 의지의 자유에 다양한 의미가 있음을 지적한다. 여러 가지 의미 중에는 “속박과 비참함으로부터의 자유”, 노예상태와 반대되는 상태로라는 의미가 있다. 우르시누스에 따르면 이런 점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행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sup>6)</sup>

그런데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제약을 받고 있다. 비록 우리 의지가 자유로이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을 수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르시누스는 인간에게 적용될

2)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22.

3)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22.

4)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22-123.

5)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23.

6)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23-124.

수 있는 의미의 자유를 지성적 인간의 의지와 일치하며 억압과 반대되는 능력에서 찾는다. 자신의 지성이 심사숙고를 거쳐 제시하는 대상을 강제 없이 자의로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능력이다. 이 경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그 판단을 따를 지를 결정하는 의지가 자유선택 능력에 모두 들어간다.<sup>7)</sup>

그런데 우르시누스에 따르면 이 때 자유는 필연과 양립할 수 있다. 필연적인 것을 자의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우르시누스는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선한 것만을 선택해야 하지만 강제 없이 자의적으로 선한 것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유롭다고 여긴다. 이는 우르시누스가 자유를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외적 자유로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강제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내적 자유로 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은 선한 본성 때문에 선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선택은 선한 본성에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의와 달리 선택하도록 강요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들은 자유롭다.<sup>8)</sup>

이와 관련하여 우르시누스는 불변성의 필연성(necessity of immutability)과 강요에 의한 필연성(necessity of constraint)을 구분하며,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필연을 전자로 여긴다. 동시에 그는 자유로운 것과 우발적인 것을 구분하면서, 우발적인 것이 자유로운 것보다 그 범위가 넓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자유로운 것은 모두 우발적이지만 우발적이라고 반드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sup>9)</sup> 이를 통해 그는 우발적인 것과 자유로운 것을 동일시하려는 입장을 피해간다.

우르시누스는 하나님의 자유 의지와 지성적 피조물(천사와 사람)의 자유 의지 사이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하나님과 지성적 피조물 모두 심사숙고하여 행동하기에 지성과 의지를 모두 사용한다. 둘째, 양자 모두 강제 없이 내적 활동에 의해서만 대상을 선택하거나 거부한다. 이는 양자 모두 비록 자신의 내면적 성향이 선호하는 것과 반대되는 방향을 원하거나 내면적 성향에 따라 행동하는 일을 미룰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면적 성향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기운다는 뜻이다.<sup>10)</sup>

우르시누스는 하나님의 자유 의지와 지성적 피조물의 자유 의지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세 가지 있다는 점도 놓치지 않는다. 이 차이점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절대적 구분과도 관련된다. 첫 번째 차이는 이해와 관련되며, 두 번째 차이는 의지와 관련되며, 세 번째 차이는 이해와 의지 모두와 관련된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일을 … 완전한 방식으로 친히 보시고 이해하”시지만, “피조물은 …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특정한 때에 그들에게 계시하는 정도만큼만 알 뿐이다.”<sup>11)</sup>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은 모든 것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는 없다. 많은 경우 인간 지성은 인간의 의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판단을 제시할 때 오류를 저지른다. 이 경우 인간 지성이 옳은 것으로 제시한 것을 의지가 기꺼이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된다.

둘째, 하나님의 의지는 독립적인데 반해 천사들과 사람들의 의지는 독립적이지 못하다. 비록 지성적 피조물의 의지가 그들 자신의 행위의 원인 노릇을 하지만, 하나님은 은밀하신 작정과 섭리를 통해 그 행위를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우르시누스에 따르면 엄밀한 의미의 자유

7)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24.

8)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25.

9)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25.

10)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25.

11)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26.

로운 선택 능력은 지성적 피조물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말씀에서 ‘억지로’와 ‘자원함’으로가 대조된다. 하나님의 자유 의지와 달리 피조물의 자유 의지는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에 의존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신학자 우르시누스는 “피조물들의 의지와 행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의 뜻에 의존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한다.<sup>12)</sup>

우르시누스는 천사와 인간과 같은 이성적 피조물들의 의지를 그들의 행동의 이차적 원인으로 여기며, 그 행동의 일차 원인을 하나님에게 둔다. 그에 따르면 이성적 피조물의 의지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경우 이성적 피조물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론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르시누스는 하나님께서 이성적 피조물의 의지를 움직이시는 방식은 강요나 강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성적 피조물의 정신에게 선택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그 정신이 선택하다고 판단하는 바를 선택하고 악하다고 판단하는 바를 거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하신다.<sup>13)</sup> 하나님은 이성적 피조물의 본성적 성향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피조물은 선한 대상과 악한 대상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성향에 따라 선한 대상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선택은 자신의 판단과 성향에 따른다는 점에서 자유롭지만, 하나님이 그 성향을 창조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그 선택의 일차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우르시누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지와 이성적 피조물의 의지 사이에 있는 세 번째 차이는 이해와 의지 모두와 관련 된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시며 그 지식은 불변하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은 모두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이성적 피조물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그 지식도 가변적이다. 따라서 이성적 피조물에게 있는 개념과 판단은 가변적이다. 이성적 피조물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기에 그 판단이 옳다는 전제 아래 그 판단을 따르기로 선택한 의지 또한 잘못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르시누스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민 23:19)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시한다.<sup>14)</sup>

우르시누스는 하나님의 의지와 이성적 피조물의 의지의 차이점들을 설명한 후에, 자신의 자유의지 이해에 대해 주어질 수 있는 반박들을 검토한다. 그에 따르면 첫 번째로 가능한 반박은 “자기의 작정한 바를 변경할 수 없는 자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다.”<sup>15)</sup>이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작정을 불변적으로 따른다는 점에서 자유의지를 지니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이는 자유의지를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능력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가능한 비판이다.

이 비판에 대해 우르시누스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의지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자신이 작정한 바를 바꾸고 싶어도 외적 원인의 방해를 받아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이 비판은 정당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설령 그분의 작정을 바꾸시려 해도 그 변경을 방해할 요소는 전혀 없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가 외적 방해를 받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게다가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한 바를 바꾸고 싶어하지 않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작정하신 분에게는 그것을 변경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sup>16)</sup>

12)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26-127.

13)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27.

14)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27-128.

15)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28.

16)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28.

우르시누스는 그의 자유의지 이해에 대해 두 번째로 가능한 반박을 검토한다. 첫 번째 반박이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의심하는 반박이었다면, 두 번째 반박은 이성적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확보하려면 하나님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반박에 따르면 이성적 피조물의 의지가 자유로우려면 하나님의 불변하는 뜻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불변하다면 이성적 피조물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하며, 이는 자유로운 선택 능력을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다.<sup>17)</sup>

이에 대해 우르시누스는 하나님이 이성적 피조물의 의지를 다스리는 방식이 강압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이성적 피조물은 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성적 피조물의 지성에게 선택 대상을 제시하시며 선한 것을 선택하는 성향을 주신다. 그 결과 이성적 피조물은 지성을 사용해서 어떤 대상을 선택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성향에 따라 그 대상을 선택한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기계적이지 않고 인격적이다. 이 때 '자유'는 자신의 지성의 판단에 일치하며 자신의 내면적 성향에 일치하는데서 주어진다.<sup>18)</sup>

우르시누스에 따르면 두 번째 반박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세 번째 반박이 나온다. 하나님이 이성적 피조물의 판단과 성향을 정하신다면, 이성적 피조물의 의지는 그 판단과 성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의지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의지가 자유롭다는 것은 그 의지가 능동적이라는 뜻이다.<sup>19)</sup> 따라서 우르시누스는 이성적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우르시누스는 성령 하나님의 제의와 영향력에 동의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는 능력이 이성적 피조물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그 제의와 영향력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은혜로부터 오지만,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성적 피조물에게 자유가 있다는 뜻이다.<sup>20)</sup> 물론 여기서 우르시누스는 타락 이전의 인간과 천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르시누스가 검토하는 네 번째 반박에 따르면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그 의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야 한다.<sup>21)</sup>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반박은 문제 되지 않는다. 인간 의지가 자유롭다는 사실은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르시누스처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일의 제일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이 반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반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한 적어도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있다.

우르시누스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계시된 뜻을 구분함으로써 네 번째 반박을 물리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인간에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거부할 수조차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시된 뜻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숨겨진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저항하는 사람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을 이룬다.<sup>22)</sup>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계시된 뜻 사이의 구분은 개혁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17)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28.

18)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28-129.

19)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29.

20)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29.

21)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29.

22)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29.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는 구분이다. 벌코프에 따르면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에게 계명 또는 행동규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섭리의 실현 이후에야 비로소 알려지는 것이다. 율법과 복음을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계명 또는 규칙은 하나님의 숨겨진 작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바이다.<sup>23)</sup>

예를 들어 말기암에 걸려 죽기 직전에 있는 아버지가 있을 때, 그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데려가시려는 작정을 지니고 계셨음을 아버지의 임종 후에 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작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작정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도리어 하나님은 나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 “병든 자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계명, 즉 계시된 뜻을 보여주셨다. 나는 그 계명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작정과 일치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 이와는 달리 나쁜 의도로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는 기도를 한 사람의 경우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작정과 일치되는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그의 기도는 악하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반대되게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은 우르시누스의 자유의지 이해에 대해 가해지는 다섯 번째 반박을 물리치는 데도 유용하다. 다섯 번째 반박에 따르면 악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면 결국 사람들의 죄의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이 된다. 그러나 우르시누스는 이미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계시된 뜻을 구분하고 두 뜻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을 알고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해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알지만 그 뜻에 불순종하기 위해 악한 일을 선택하고 행한다. 게다가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데 있지 않다.<sup>24)</sup>

여기서 우르시누스는 다섯 번째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의도확대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서 은 삼십을 받고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겼다(마 26:14-15). 일부 사람들은 가롯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가능했겠느냐고 묻는다. 그들은 가롯 유다의 배신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롯 유다에게 책임이 없고 도리어 공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의도확대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가롯 유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해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누군가 회칼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 하더라도 회칼을 만든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그 사람이 회칼을 제작할 때 살해 용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그런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리어 그 회칼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 악한 사람은 비록 그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나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로 인해 그에게는 도덕적 책임이 있다.

### 3. 4중 상태에 나타난 인간의 자유 의지

우르시누스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양립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하

23) Louis Berkof, 『조직신학』, 권수경, 이상원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309.

24)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29-130.

나님의 숨겨진 뜻과 계시된 뜻을 구분함으로써 이에 대한 여러 반박들을 물리쳤다. 이제 우르시누스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중상태에 따라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설명한다. 그는 인간의 상태를 (1) 타락 전의 상태와 (2) 타락 후의 상태, (3) 거듭난 후의 상태, (4) 영화롭게 된 상태로 나눈다.

우르시누스는 특정한 형태의 자유가 인간 의지에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창 1:26)고 하실 때 인간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성경말씀에 근거해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하기에 그는 타락 이전의 인간의 인식과 의지에 자유가 있다고 여긴다.<sup>25)</sup>

우르시누스에 따르면 이에 대한 첫 번째 반박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원죄의 관계와 관련된다. 원죄 교리에 따르면 타락 후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지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 경우 인간은 원죄 때문에 죄인일 뿐이지 자범죄 때문에 죄인일 수는 없다. 그런데 인간에게 여전히 의지의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인간의 철저한 부패를 전제하는 원죄 교리를 부정하는 셈이 된다.<sup>26)</sup>

우르시누스는 타락 후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타락 이전 인간의 자유의지만큼 완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 불완전성 때문에 타락 후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외적 강제 없이 자발적으로 불순종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타락 후 인간은 의지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동시에 그러한 선택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원죄 교리도 보존된다.<sup>27)</sup>

우르시누스에 따르면 선과 악을 동등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박이 이러한 대답에 대해 나올 수 있다. 이 반박에 대해 우르시누스는 그러한 자유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런 자유 개념을 받아들이는 경우 하나님은 전혀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과 악 중에서 오직 선만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선과 악을 동등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로 이해하는 경우 하나님은 전혀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되신다.<sup>28)</sup>

우르시누스는 이에 대해 가능한 또 다른 반박을 검토한다. 자유의지를 선과 악을 동등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로 이해하지 않는 경우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인정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지는 독립적이어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반면, 인간의 의지는 독립적이지 않아 다른 것에 의존한다. 이 반박에서 의존성은 자유와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sup>29)</sup> 이 경우 하나님의 의지는 자유롭지만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대해 우르시누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더 세밀하게 정의함으로써 대답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만 자신의 다스림도 받는다는 점에서 자유롭다. 그에 따르면 자유롭지 못한 의지는 다른 존재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정작 자신의 다스림은 받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존재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다스림만 받기에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무한하며 따라서 인간의 유한한 자유의지와 다르다. 그러나 우르시누스에 따르면 인간의 의지는 도덕적 책임을 지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자유롭다.<sup>30)</sup>

25)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0.

26)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0.

27)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0.

28)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0.

29)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0.

우르시누스는 자신의 답변에 대해 또 다른 반박이 나올 수 있다고 여긴다. 그는 인간이 인간 자신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점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엇의 속박을 받는 것은 자유롭지 못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다스림도 받아야 하는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sup>31)</sup>

우르시누스는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자기 의도대로” 행할 때에만 자유롭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위의 반박을 물리친다. 그가 보기에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타락한 이후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고, 오직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속박과 부자유 속에 있다.<sup>32)</sup> 우르시누스가 보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사중상태에 따라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물음은 (1) 타락 이전에 인간은 얼마만큼 많은 자유의지를 지녔으며, (2)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자유의지가 남았으며, (3) 중생 이후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만큼 회복되며, (4) 영화로운 상태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떤 모습을 지니는가라는 네 가지 물음으로 나누어진다.<sup>33)</sup>

(1) 타락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었으며, 그의 행위와 성향은 하나님께 자의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타락 이전에 인간의 의지는 아직 확고하지 않아서 선과 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이 때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성향과 의지를 지니고 있었기에 어떤 것이 악한 것인 줄 알면서 그것을 고의로 선택하려 하지는 않는다.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의 지식이 확고하지 못한 데 있다. 인간은 “겉보기에 선한 것”을 보면 그것이 실제로도 선한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sup>34)</sup>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판단했다. 타락 이전 인간의 잘못된 선택은 그의 지식이 확고하지 않은 데 있었다. 그에게는 하나님만큼이나 깊은 지혜가 없었다.

(2) 타락 이후에 인간은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유롭지만, 그의 선택 대상은 언제나 악이다. 타락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졌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성향도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해 반감을 품는다. 우르시누스는 타락 이후의 인간 상태를 성경과 우리 경험이 모두 증언해준다고 여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며(창 6:5), 우리의 양심도 우리 자신의 성향이 언제나 악으로 향하는 것을 증언한다.<sup>35)</sup>

우르시누스는 타락 이후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하여 루터와 에라스무스 사이의 논쟁을 떠올린다. 에라스무스에 따르면 인간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도둑질하려 할 때 그 손을 막는 일은 쉬운 일이다. 도둑질하려는 성향이 비록 사람

30)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0-131.

31)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1.

32)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1.

33)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1-132.

34)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2.

35)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2-133.

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성향을 억제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크라테스와 같이 탁월한 일들(덕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이는 인간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sup>36)</sup> 따라서 타락 이후에 인간의 의지가 언제나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르시누스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우르시누스는 에라스무스와 같은 사람이 선행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반박을 물리친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하시는 행위는 겉으로만 선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와와 같이 유한한 인간은 어떤 행위나 대상의 외면만 볼 뿐 내면은 보지 못한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좋은 것으로 본 것도 바로 그러한 까닭에서이다. 우르시누스에 따르면 겉으로 선해 보이는 행위일지라도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의 성향이 선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행위는 선행이 아니다.<sup>37)</sup>

또한 에라스무스의 지적처럼 도둑의 손을 막아 도둑질을 막는다 해도 도둑의 마음속에 있는 도둑질 성향은 막을 수 없다. 그 도둑은 행위로는 도둑질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과 성향으로는 도둑질이라는 죄를 범하고 있다. 또한 우르시누스에 따르면 악인들이 외적으로 악행을 하지 않는 이유도 악인들 자신에게 있지 않고 악인들의 죄된 본성을 억제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 따라서 악인이 악한 행위를 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악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게다가 악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내적 순종을 스스로 행할 수 없다.<sup>38)</sup> 우르시누스에 따르면 “그러한 순종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다.”<sup>39)</sup>

우르시누스가 선행을 엄격하게 정의하는 것에 대해 성경에 나타난 율법을 들어 반박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성경에 따르면 “율법이 지정하고 명령하는 행위들은 선한 것이다.” 따라서 그 행위 자체가 선하기에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율법의 명령 중 상당수를 행하며, 따라서 선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sup>40)</sup>

우르시누스는 율법이 명령한 행위 자체가 선행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는 ‘우발적으로’ 악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과 의도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고 명령하시지만, 하나님 영광 대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구제하는 행위는 선행이 되지 못한다. 구제 행위 자체는 선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의도로 행해지는 한 그와 관련하여, 즉 우발적으로 그 행위는 선행이 되지 못한다.<sup>41)</sup>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명령으로써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이다. 칸트의 표현처럼 당위는 가능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마땅히 A를 해야 한다’는 명령이 의미 있으려면 ‘A를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즉 선행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이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스스로 행할 능력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영향력은 필요 없다. 그러해

36)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3.

37)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3.

38)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3-134.

39)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4.

40)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4.

41)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4.

야 인간은 온전히 자유로운 의지를 지닌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2)</sup>

우르시누스는 ‘원한다’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함으로써 위의 주장을 물리치고자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이 순종되고 자신의 초청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신다. 이 경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초청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정의가 시행되지 않기를 원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나 그분의 정의는 시행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원하시지만, 이는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sup>43)</sup>

물론 이 설명에 대해 여전히 다른 반박이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행을 하라고 초청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선행을 기쁘게 인정하신다. 이는 선행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우르시누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을 하라고 초청하실 뿐 아니라 그 초청에 동의하도록 우리 의지를 움직이시는 일까지 하신다고 함으로써 이 반박을 물리친다.<sup>44)</sup>

우르시누스는 이에 대해 네 번째 반박이 나올 수 있다고 여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셔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다면, 거듭나기 전에 인간은 죄를 짓는 일밖에 할 수 없다. 우리가 죄만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를 선행으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뜻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sup>45)</sup>

우르시누스는 타락한 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그 필연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책임 전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여긴다. 인간의 경우 그 필연성은 인간의 시조에게서 생겼기에 인간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sup>46)</sup>

(3) 우르시누스는 거듭 났지만 아직 영화로운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의 자유의지, 즉 자유로운 선택 능력에 대해 설명한다. 이 상태의 사람은 여전히 악한 일을 한다는 점에서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과 같지만, 선한 일도 행한다는 점에서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과 다르다. 그가 이전 상태의 사람과 달리 선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그의 의지를 회복시키기 시작한 데 있다. 우르시누스에 따르면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새롭게 하신다. 그 결과 인간의 지성은 새로운 빛과 지식을 얻게 되었으며, 인간의 마음과 의지는 하나님의 법과 일치되는 소원과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르시누스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신 30:6)라는 말씀을 인용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인간은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다.<sup>47)</sup>

그러나 우르시누스에 따르면 거듭난 사람은 비록 새롭게 선행을 행하고자 하는 성향과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았지만 여전히 악한 일도 선택하고 행한다. 우르시누스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한다.<sup>48)</sup>

42)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4.

43)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4.

44)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4-135.

45)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5.

46)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5.

47)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5.

첫째, 거듭난 사람의 지성과 의지가 이 땅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는다. 이 주장을 통해 우르시누스는 이 땅에서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입장을 달리한다. 우르시누스에 따르면 거듭난 사람의 지성과 의지가 이 땅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육체에 있다.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신자에게는 부패성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 결과 그의 행위는 죄로 얼룩져 있으며 불완전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르시누스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롬 7:18)라는 말씀을 인용한다.<sup>49)</sup> 여기서 우르시누스가 말하는 육체는 영혼과 대조되는 몸을 뜻하는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일반적으로 개혁신학자들은 영육 이원론을 부정하고,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전 인격이 영적이냐 육적이냐에 따라 그 상태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둘째, 우르시누스에 따르면 거듭난 사람이 언제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시거나 낮추시기 위해 일시적으로 그를 버려두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신학자 우르시누스는 하나님의 견인을 믿는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때와 방법에 따라 버려둔 자를 다시 불러 회개하도록 하신다.<sup>50)</sup>

우르시누스는 이러한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거듭난 사람에게 부분적으로는 선을 행하고 부분적으로는 악을 행하는 성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성령께서 인간의 지성을 밝히시고 인간의 의지를 바꾸실 때 선을 지향하는 성향이 인간 마음에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순종이 시작된다. 그러나 우르시누스에 따르면 그 순종은 시작이지 아직 완성은 아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도 악을 향하는 성향이 아직 남아 있다. 원죄 때문에 여러 가지 연약함과 악한 욕구가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 결과 그들이 외적으로 선행을 하더라도 그 선행은 완전한 의미의 선행이라 하기 어렵다.<sup>51)</sup>

우르시누스는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하는 선행이 완전한 의미의 선행이 아니라는 점을 114문답에서 다룬다. 그에게 선행은 일차적으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이다. 114문답은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순종을 그저 약간 시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전한 뜻으로 하나님의 계명 중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를 좇아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sup>52)</sup>라고 밝힌다. 우르시누스에 따르면 거듭난 사람은 1) 외형적인 절제와 관련하여, 2)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와 관련하여, 또는 칭의와 중생의 은덕으로 인하여, 3) 이 땅에서 외적인 동시에 내적인 순종을 시작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율법에 순종함으로 선행을 할 수 있다.<sup>53)</sup>

그러나 율법의 요구에 대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완전한 순종을 행하는 일은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 시편 143편 2절도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고 고백하기 때문이다.<sup>54)</sup> 거듭난 사람도 율법에 어긋난 일을 많이 행하며, 율법에 따라 행하더라도 동기나 의도, 목적에 있어서 불완전하다. 우르시누스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사 64:6)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sup>55)</sup>

48)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5.

49)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5-136.

50)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6.

51)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6.

52)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945.

53)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946.

54)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946-947.

55)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947.

그러나 우르시누스는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첫째, 하나님은 거듭난 자를 구원하시고자 한다. 둘째, 거듭난 사람은 비록 죄를 짓더라도 최종적으로 회개를 한다. 셋째, 거듭난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서도 참된 믿음과 회심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sup>56)</sup>

거듭난 사람의 행위가 아직 불완전하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첫째로, 거듭난 사람의 선행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면 그 행위 자체는 불완전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는 불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르시누스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절대적 의미와 상대적 의미로 구분함으로써 이 반론을 피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거듭난 사람의 선행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결과인 동시에 그 사람 자신의 행위이다. 그러하기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한 그 행위가 순결하지만 아직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의 행위인 한 많은 결점과 악이 그 행위에 함께 따라 붙는다.<sup>57)</sup>

두 번째 반론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행위는 불완전할 수 없다. 그러나 우르시누스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며 영화로운 상태에서만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반론을 물리친다. 그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사랑이 이 땅에서는 부분적이지만 종말에는 완전할 것이라고 대답한다.<sup>58)</sup>

세 번째 반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 8장 1절에 주목한다. 이 반론은 그런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의 행위가 완전히 선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르시누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거듭난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상에 있음을 밝힘으로써 이 반론을 물리친다.<sup>59)</sup>

네 번째 반론은 마지막 심판에 주목한다. 하나님의 정의는 엄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한 선행이 완전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우르시누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성도들에게서 인정하시는 상급은 행위 언약에 따른 상급이 아니라 믿음 언약에 따라 주어진 그리스도의 상급이다. 동시에 그들의 선행은 그들의 믿음의 열매이기에 그 열매가 완전하지 않다 해도 그 믿음이 완전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면할 수 있다.<sup>60)</sup>

다섯 번째 반론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어”라는 시편 119편 1절에 주목한다. 성경이 성도의 선행이 완전하다고 주장한다는 반론이다. 이 반론을 물리치기 위해 우르시누스는 여기서 말하는 완전성은 하나님께 들려야 하는 순종의 완전성을 가리키지 않고 인간의 외식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순종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외식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경건의 시작조차 없다. 하나님은 참된 경건의 시작을 그분의 은혜로 받아들이시며,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전가 때문에 가능하다.<sup>61)</sup>

우르시누스는 여섯 번째 반론이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시 119:51)는 다윗의 고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러나 우르시누스에 따르면 이러한 본문은 성도들에게 율법과 완전히 일치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라는 요구를 하지 않고 도리어 선한 양심의 의

56)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947.

57)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947.

58)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947-948.

59)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948.

60)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948.

61)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948-949.

로움을 지키라는 요구를 한다. 우르시누스는 선한 양심과 믿음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선한 양심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죄를 씻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sup>62)</sup>

우르시누스는 일곱 번째 반론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근거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이라.” 이 본문은 거듭난 사람이 완전한 선행을 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르시누스는 이 본문에 비유적 어법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성도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기에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뜻이다.<sup>63)</sup>

우리의 현재 상태가 거듭났지만 아직 영화롭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르시누스는 세 번째 상태의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상대적인 긴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영화로운 상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짧게 설명한다.

(4) 우르시누스에 따르면 이 세상의 삶 이후에 오는 영화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주어진다. 그 사람은 오직 선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우르시누스는 이 상태의 자유를 최고의 완전한 자유라고 여긴다. 이런 자유를 지닌 인간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영원토록 드릴 수 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죄를 미워하기 까지 한다. 세 번째 상태의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원죄의 영향 때문에 죄를 철저히 미워하지는 못한다. 그는 여전히 죄를 매력적으로 판단하고 느끼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러나 네 번째 상태의 인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에게 죄는 혐오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sup>64)</sup>

우르시누스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그 상태에서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가 그의 마음 속에 강하고도 열정적으로 생긴다. 그의 지성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없다. 따라서 그에게는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없다. 또한 그의 의지는 하나님을 조금도 멸시하지 않는다. 그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의 완전한 지성이 제시하는 선한 방향을 향해 언제나 기울어진다.<sup>65)</sup>

둘째, 영화로운 상태에서 성도는 성령의 다스림을 영원토록 받는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를 한 시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조금의 잘못이나 악행도 행할 수 없다. 우르시누스는 “부활 때에는 ....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마 22:30)는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한다. 그에 따르면 선한 천사들의 의지는 오직 선한 것으로만 끝난다. 우리가 선한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오직 선한 것만 바라고 행한다는 뜻이다. 그 결과 영화로운 상태에 있는 성도는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보다 더 탁월한 상태에 놓인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사를 받았으며 선과 악 모두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지만 외적으로만 선하고 실제로는 선하지 않은 것에 끌릴 수 있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영화로운 상태의 성도들은 오직 선한 것만 행할 수밖에 없기에 불변하도록 선할 것이다. 그들은 오직 선한 것만 사랑하고 선택한다는 점에서, 즉 악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

62)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950-951.

63)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951-952.

64)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6.

65)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6.

롭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담보다 더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러하기에 우르시누스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주장하는 개혁파 신학이 인간의지로부터 자유를 빼앗는다는 비판을 사악한 비방이라고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타락 이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인간에게도 의지의 자유가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그 인간은 언제나 악을 원하고 악을 선택한다. 그 점에서 그는 악과 죄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 도리어 죄와 악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가 외적으로 선해 보이는 행위를 한다 해도 사람의 마음의 의도와 목적을 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와는 달리 영화로운 상태의 성도는 언제나 선을 원하고 선을 선택한다. 그러나 그는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자유롭다. 타락 이전의 아담도 선을 원하고 선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유로웠지만 언제나 그렇게 원하고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불완전했다. 결국 완전한 자유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선을 언제나 원하고 선택하는 지속성과 불변성도 포함한다.<sup>66)</sup>

### III. 나가는 말

이 글에서는 개혁신학자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해설』에서 자유의지를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신본주의적 관점에 서서 논리적이고 존재론적인 순서에 따라 기독교 교리를 설명한다. 이와는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은 루터파와 로마 가톨릭 양편의 공격을 받고 있던 개혁파 성도들이 자신들의 고난 속에서 찾고자 했던 궁극적 위로에 관심을 두었기에 유일한 위roi신 구원자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는 구원론적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하기에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도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논의한다. 동시에 거듭난 성도조차 현실의 힘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죄를 저지르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위로를 준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그들의 불완전한 순종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주어지는 상급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우르시누스는 당시 성도들을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이 지니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구원자 이미지보다 심판자 이미지였다. 중세 로마 가톨릭 신자에게 그리스도는 궁극적 위로를 주는 구원자이기보다 그들의 행위를 엄격히 평가해서 처벌을 내리는 무서운 심판자였다. 삼위일체적인 동시에 기독교론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인간 의지의 자유를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외적 자유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자발적으로 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내적 자유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작정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또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계시된 뜻을 서로 구분함으로써 하나님의 작정의 불변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 대한 인간의 책임도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66) Zacharias Ursinus,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1376-138.